

5/4(수) 대하 10-13장 최종평가

역대기는 <올바른 성전, 올바른 예배>에 관심합니다.

북 왕국보다 남 왕국 역사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입니다.

역대기는 12지파, <온 이스라엘>을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,

불법하고 부정한 예배에 관해서는 철저히 배제합니다(13:4-12).

북 왕국은 여로보암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(11:14-15, 왕상12:28,31,33).

아비야 왕은 북 왕국의 배교 행위를 혹독하게 꾸짖습니다(13:5-9).

회복의 원형으로서 남 왕국의 예배 처소와 제의를 제시합니다(13:10-11).

돌이켜 한 하나님 신앙을 가질 때 함께 하나님 편이 될 것이지만,

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(13:12).

르호보암의 미숙함은 왕국 분열에 일조했습니다.

그럼에도 그것이 르호보암의 잘못만은 아닙니다(10:15, 13:7).

역대기는 이 일로 르호보암의 생애 모두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.

<성전, 예배, 말씀에 대한 반응>, 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
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(11:4).

이후 왕의 직무에 충실하여 영토와 성읍들을 방비합니다(11:5-12).

북 왕국의 제사장과 레위인들, 독실한 신앙인들이

바른 예배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(11:14-16).

“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(12:5)”

그러나 르호보암은 형통하게 되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(12:1, 신6:10-12).

하나님은 일관성 없는 르호보암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(12:14).

겔비와 오만의 자리를 오간 르호보암(10:14-15, 11:4,17, 12:1,6-7).

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(12:14).

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평가는 무엇일까요?

❶ 오늘, 내가 선 곳은 겔비의 자리입니까, 오만의 자리입니까?

❷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? (시편1:1-2)

시작기도 + 통독 대하 10-13장